

전문신문협회보

제423호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pma.kr

대 (02)334-7251

2025년 12월 29일

“AI 대전환 시대, 심층적 전문성으로 대한민국 미래 여는 나침반 될 것”

김원준 의학신문 경영기획실장 대통령표창 수훈
홍준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동암언론상 수상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 이하 협회)가 창립 61주년을 맞아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전문신문, 대한민국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지난 11월 17일 오후 한 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 한국언론재단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일본전문신문협회 쓰미타 도모코 이사장 등 내빈들과 정부포상 및 한국전문신문상 수상자, 그리고 역대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과 전문신문 발행인 등 전문신문 언론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 회기 등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배현진 의원, 조은희 의원이 영상 및 서면 축사를 전문신문의 날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과 내빈 소개 △기념사 △축사 및 축하영상 △정부포상 및 동암언론상·한국전문신문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탁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문언론이 인구 감소와 디지털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며 “AI 시대를 맞아 전문신문은 ‘심층적 전문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전문 언론 간의 AI 활용 사례 공유 및 디지털 공동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전문신문은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식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AI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전문신문이 가진 정확성, 신뢰성, 전문성은 어떠한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다”며 “전문신문이 Gen AI(생성형AI)와 디지털 변혁 속에서 올바른 혁신 방향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기념식에 참석한 수상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보 과잉 시대에 전문신문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보도를 통해 독자의 통찰력과 올바른 판단을 돋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전문신문협회 쓰미타 이사장은 축사에서 “2026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 전문신문협회 임원 합동세미나에서 공통된 과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 보자”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기념식과 함께 ‘정부포상 및 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이 열렸다.

정부포상 시상식에서는 의학신문 김원준 경영기획실장이 대통령 표장을 수훈했다. 이어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표창은 △환경타임즈 유철 발행인 △농촌여성신문 송재선 편집국장 △디지털전문뉴스 이진숙 과장 △장업신문 김상은 편집국장 △한국농업신문 이성복 상무이사 △중소기업뉴스 표정주 차장 △코리아시핑가제트 박미영 본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전문신문상 시상식에서는 홍준 한국대학신문 발행인이 동암언론상을, 전문신문상은 한국연예 스포츠신문 박범석 대표, 메디칼 업저버 양영구 편집부장, 내외뉴스통신 김지연 기자, 화광신문사 이영학 편집부장, 원예산업신문 안이주 관리부장이 수상했다.

또한 ‘전문신문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에 당선된 환경타임즈 유철 발행인, 가스신문 양인범 기자,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이어 직전 회장을 역임한 원예산업신문 박두환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홍순성 흥스랩 대표가 ‘AI 시대, 바람직한 전문 미디어의 역할을 다시 묻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를 통해 홍순성 대표는 AI 대전환에 대한 전문신문업계의 뜨거운 관심과 위기 극복의지를 보여줬다.

▷관련기사 8-9면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1주년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전문언론인 여러분들을 비롯한 정부, 국회, 유관단체분들과 축사와 화환 등으로 축하해주신 분들, 그리고 수상자 및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 한국언론진흥재단 남정호 미디어본부장, 일본전문신문협회 쓰미타 도모코 이사장, 일본전문신문협회 스카이 리초오 전무이사, 일본전문신문협회 나헤이 히데키 국제교류위원장, 국가안보통일연구원 황홍익 원장, 아이피디 이대성 상무, WKC세계한류대회조직위원회 최병호 총재, 박병규님

✿ 화환 및 축기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희영 장관, 한국잡지협회 백동민 회장, 한국신문협회 임재정 회장,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일동, 담양군수, 보성군수, 진도군수, 북천자생병원 하인혁 병원장, 아이피디 장용호 대표, WKC세계한류대회조직위원회 최병호 총재, 국토매일 백용태 발행인, 보건신문 유태우 발행인, 한국대학신문 홍준 발행인, 한국임업신문 김종철 발행인

✉ 축하메시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윤덕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 박정하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조은희 국회의원, 남정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학신문 박연준 발행인, 화광신문 정재환 발행인,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박범석 발행인, 보건신문 유태우 발행인, 한국섬유신문 김시중 명예회장, 한국대학신문 홍준 발행인, 약업신문 함용현 회장, 화장품신문(뷰티누리) 함태원 발행인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5 한의혜민대상' 수상

한의신문

한의신문(발행인 윤성찬)이 '대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지난 12월 1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했다. 영예의 한의혜민대상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한약이 간 건강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수상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 진료권 확보, 장애인 주치의제·노인주 치의제 등의 추진을 통한 통합돌봄 서

비스에서의 한의 영역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사 인력을 활용한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신작해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과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왔으며, 한의학은 이제 민족의 학을 넘어 세계로 뻗은 K-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의료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도 개선과 연구 기반 강화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 한의협 총무·의무이사와 방송인 장영란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정유용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수상자 발표를 통해 원성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선정됐음을 밝혔다.

원성호 교수는 "그동안 질병의 원인 인자 규명, 약물부작용 효과 규명 등

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한의약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은데, 한의혜민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이상현 교수님과 양태현 연구원, 안주희 교수님에게 감사드리며, 이 연구 결과가 향후 한의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은 국민 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김봉현 경상북도 한의사회장 △조옥현 전라남도한의사회 기획이사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용성 경기도의회 의원 △고호연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손주희(기천대)·박재웅(대전대)·소유진(우석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한의대생으로 구성된 대한한의사협회 앰배서더 가운데 활발한 활동으로 한의약의 가치를 널리 알린 진다연(동국대)·이주은(원광대)·노한별(부산대)·조유준(대구한의대) 학생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동작재향경우회 제62회 경우회날 기념식... 조덕원 발행인 자문위원 합류

환경경찰뉴스

환경경찰뉴스 조덕원 발행인이 동작재향경우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11월 21일 대한민국재향동작경우회·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62회 대한민국 재향경우의 날' 기념식에서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현직·퇴직 경찰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62년의 경찰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 안전 협력의 의미를 공유했다. 또한 여해동 동작재향경우회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박일하 동작구청장, 민갑룡 제21대 전 경찰 청장,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석화 동작



경찰서장은 가정사로 불참했으며 전재홍 경무과장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찰서 현황을 소개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조 발행인은 지역 치안·안전·공익 현장을 꾸준히 취재·보도해 온 언론인으로, 향후 경우회 활동과 지역 안전을 위한 의견 제시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장 수여식에는 다른 위촉 대상자들도 함께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초등학교 학생들의 바이올린 협주와 초대가수 공연, 궁중무용 등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국민의례, 기념사·축사, 유공자 표창 순으로 이어졌다. 동작재향경우회는 전직 경찰관들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동작구 회원은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발전위원회' 활성화 추진

제259차 정기이사회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는 지난 11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59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5 한국전문신문상 수상자 선정의 건 △2025 전문신문의 날 브로슈어 광고 계재의 건 △협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위

원회' 활성화 추진 △정부 출입전문기자 풀 제도 시행 △전문신문의 날 행사와 관련 등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어 △2025 전문신문기자 연수 실시 △일본전문신문대회 참석 결과 △회원변동 상황 △협회비 납부 상황 및 재정보고 등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3면에 계속)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가입 안내

■ 회원가입 자격 및 절차

- 가. 가입자격 : 전문신문(인터넷) 발행인·대표이사 또는 발행법인
- 나. 가입절차 : 입회원서, 발행인 카드, 회원사 카드(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입회비와 함께 본 협회 사무국에 신청.
- 다. 회비내역 : 입회비 - 700,000원 월회비 - 90,000원 *연회비로 선납시 5% 할인
- 라.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9-01-1135-182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 신한은행 : 100-003-283205 (예금주 : 한국전문신문협회)

- 문의 :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 02-334-7251~2

■ 협회 주요사업

- 가. 협력업체를 통한 신문 제작, 편집, 인쇄, 발송, 홈페이지 관리 경비 절감
- 나. 전문신문 육성 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다. 전문신문협회 발행, 배부를 통한 홍보
- 라. 전문신문편람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
- 마. 정부공익광고·기업광고 수주 및 회원사 배정
- 바. 기자증 발급 및 취재편의 지원
- 사. 정기간행물 납본 대행 - 국립중앙도서관
- 아. 각종 캠페인 및 광고주/유관단체장과의 좌담회 개최
- 자. 경영인 세미나, 기자연수교육, 강연회 개최
- 차. 한국전문신문상 및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 카. 정기간행물 신규 및 변경등록 대행
- 타. 전문신문의 이해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협회, 2025 전문신문 기자연수 개최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공동으로 '2025 전문신문 기자연수'를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 까지 2일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누리에서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문신문 취재 및 편집기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김광탁 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강의 6개로 진행됐다.

1일차에는 △온라인 기사 제작과 콘셉트 뽑아내기(김형진 중앙일보 편집부 부장) △언론 보도와 명예훼손(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 △전문신문의 특종기사 발굴과 작성(하준우 전 동아일보 국장)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2일차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보검색과 취재보도(최영준 구글 뉴스랩 티칭펠로우) △체험적 기자론 : 미디어혁명시대를 사는 기자의 역할(고규대 이데일리 상무·디지털미디어센터장) △인터넷여서 사이(間)에서 바라보는 자(김유태 매일경제신문 기자)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이번 연수에서 배운 강의에 대해 평가했다.

강의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취재 및 편집기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에 중점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누리에서 진행된 2025 전문신문 기자연수에 참석한 기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두며 진행됐다.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에서 연수 일정을 안내하며 "이번 기자연수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전문신문 기자들을 맞이했다.

본 강의에 앞서 김광탁 회장은 "올해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창립 61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번 연수를 통해 전문신문의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들은 만나 더욱 반가울 때다"며 "우리의 미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언론인들의 창조적인 생각과 의욕적인 패기 그리고 도전이 만났을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오

늘날 미디어 업계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각자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며 "전문신문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국가산업 발전을 이끄는 사명감이 더 막중해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각자의 역량과 자질을 개발해서 미래 전문언론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매년 전문신문 언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기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신문 기자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김광탁 회장, 제78회 일본전문신문대회 참석



제78회 일본전문신문대회에 참석한 한국전문신문협회 대표단이 일본전문신문협회 임원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 대표단이 지난 10월 21일 일본전문신문협회(이사장 쓰미타 토모코)가 주최하는 '제78회 일본전문신문대회' 참석했다.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협회 김광탁 회장과 윤봉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에 빛냈다.

내빈대표로 축사를 맡은 김광탁 회장은 축하인사와 함께 일본의 유명 소설가 사토로 류노트케가 남긴 "혼자서는 방울이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과거 30여년간의 우호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디지털 대전환 공동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 AI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혁신포럼 정례화'를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쓰미타 토모코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혁신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전문신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식부터 혁신되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때

전문신문의 미래는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축하사절단의 참석에 큰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양국 전문신문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 전문신문 합동포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일본전문신문 발전에 공헌한 언론인을 위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편 협회는 일본전문신문협회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양국의 전문신문에 대한 정보 교류와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 양국 협회는 매년 10월 일본전문신문협회에서 주최하는 '일본전문신문대회', 11월 한국전문신문협회에서 주최하는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에 임원진을 초청해 자리를 빛내며 국제적 위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제3회 우수기사 시상식 개최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가 '제3회 우수기사'를 선정해 시상식을 지난 11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한 '우수기사상'은 전문신문 매체에서 보도하는 우수기사를 선별하고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신문의 질을 제고하고자 재정됐다.

앞서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까지 우수기사 추천서를 접수받았다. 총 14개 분야(농수축산, 의약, 종교, 교육, 건설, 식품, 뷰티·패션, 교통·에너지, 금융·세무, 라이프·경제)의 추천 결과 총 16건의 기사가 접수됐다. 이후 협회는 제258차 이사회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기획기사(독창성) △파급 및 영향력 △공감성 △문장력 등이다. 그 결과 △한국선교 140주년 기획: 언더우드의 유산(한국기독공보 특별취재팀: 표현모 부국장 대우, 신동하·임성국 부장) △중증 아토피 극심한 가려움, 완전 개선한 린버크 체방 증례(약사신문 김민건 편집부장) 등을 우수기사상으로 선정됐다.



제3회 우수기사상 시상식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 한국기독공보 특별취재팀, 김광탁 한국전문신문협회장, 김민건 약사신문 편집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 등을 우수기사상으로 선정됐다.

한국기독공보 특별취재팀이 보도한 기사는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장로교회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의 유산을 되새겨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에 헌신한 선교사의 신앙과 비전을 조명하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약사신문 김민건 편집부장이 보도한 기사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극심한 가려움증이 '린버크' 처방을 통해 완전히 개선된 임상 증례를 다했다. 이를 통해 환자 고충의 실질적 해소를 전달하며, 구체적 증례 사례를 통해 임상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를 분석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김광탁 회장이 우수기사상을 수상한 기자들에게 상장과 상금 30만원을 수여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2면 제259차정기이사회에 이어)

본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2025 한국전문신문상 수상자 선정의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회 사무국은 한국전문신문상 후보자 추천을 실시한 결과 8명의 후보자가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이후 협회 5개 회원사 발행인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광탁 회장은 비롯한 임원들은 심사 결과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준비 상황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먼저 브로슈어 광고와 관련해서 자리에 참석한 임원사 가운데 '의학신문(발행인 박연준)'과 '화광신문(발행인 정재환)'이 계재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이날 김광탁 회장은 협회 발전에 기여한 제30대 박두환 회장(원예산 업신문 전 발행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원들은 의견에 동의했다.

더불어 협회에서 실시한 '전문신문의 날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키로 했다.

이후 '협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위원회' 활성화 추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임원들은 "다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운영 중인 위원회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발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국대학신문 흥준 발행인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키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안을 통해 임원들은 내년부터 '전문신문 기자연수'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사상' 자격조건에 기자연수 참석자로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사회 개회에 앞서 제3회 우수기사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2026 전문신문 한·일합동연수회 일정 ●

- ▶ 일정 : 2026년 5월 28, 29, 30일
- ▶ 장소 : 일본 낫고(日光)
- ▶ 문의 : 02-334-7251

알림

‘스타임업인상’ 11인 산림청장상 수여

한국임업신문

한국임업신문(발행인 김종철)이 산림청과 공동으로 ‘스타임업인 시상식’을 지난 9월 24일 대전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업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지역사회와 임업 발전에 기여한 임업인들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임산물 6차 산업화,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임업 창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이룬 임업인 11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고윤권(제주숲사랑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홍래(한국전문임업인협회 충북도지회 수석부회장), △박경호(한국전문임업인협회 충북도지회 여성부회장), △심세훈(평창군협의회 감사), △윤교선(강원산양산삼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정복(한국밤재배자협회 부여지회 외산면분회장), △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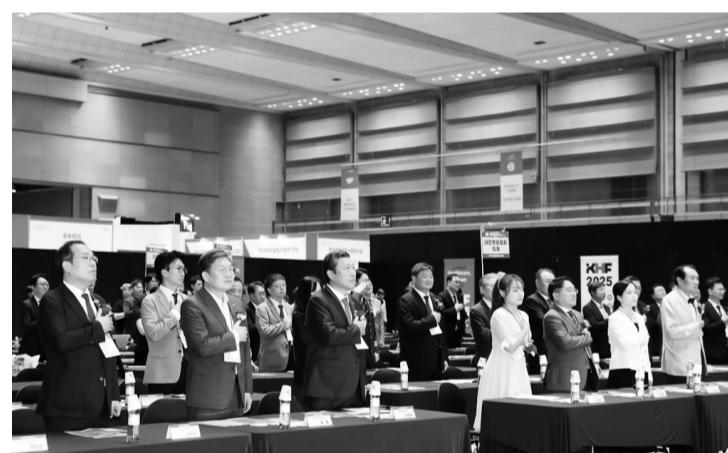
려(디엠지(DMZ)숲 대표), △임현웅(공주 선학농원 대표), △전대현(한국전문임업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전영태(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합천군협의회 사무국장), △정준호(한국산림경영인협회 전남지회 정회원).

이날 김종철 한국임업신문 대표 이사는 “임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의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수상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임업신문은 앞으로도 임업인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숲과 임업의 가치를 국민께 널리 알리는 데 앞장 서겠다”며 “특히 임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임업인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환자 여정’과 함께하는 ‘병원 미래’ 보여준 ‘KHF 2025’



병원신문

병원신문(발행인 이성규)을 발행하는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2025, KHF 2025)’를 개최했다.

KHF는 대한병원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박람회로, 2014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 12주년을 맞이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유망 전시회 및 서울시 국제화 전시회로도 선정된 바 있다.

올해 대주제는 ‘Linked Healthcare, Human Plus’였는데, 환자 여정을 중심으로 기술과 병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전시 구조가 도입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시장은 ‘자기진단·예방(Selfcare

& Aging Tech)→병원 방문(Hospital visit)→진단·검사(Diagnosis & Examination)→맞춤형 치료(Personalized Treatment)→지속가능 병원(Sustainable Hospital)→건강관리(Innohealth Lab)’로 구분됐다.

이성규 회장은 개막식 개회사에서 AI, 빅데이터와 같은 변화된 기술이 병원의 진료환경과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는 가운데 병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향후 흐름을 KHF 2025에 모두 담아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KHF 2025는 약 300개 업체의 460여 부스 전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보, 의료기기 시장 진출, 의료법인 경쟁력 강화, ESG 기반 의료기관 탄소중립 전략, 미래의료 스마트혁신, 전자약 명품화 방안, 병원 기획 전문가, 의료사

고 대응 및 손해배상책임, 병원건

축, 스마트병원, 지역사회와 의료 복지시설, 의료 AI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진행됐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한·아프리카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AI·재난안전·모듈러 등 스마트건설 생태계 확장 논의



한국건설신문

한국건설신문(발행인 양기방)

은 스마트건설 분야의 대표 학술 행사인 ‘제8회 스마트건설세미나’를 지난 9월 17일 일산에 위치한 킨텍스 1전시장 4홀 특설세미나장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한국건설신문과 킨텍스가 공동 주최, 스마트건설교류회가 주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5개 유관기관이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K 스마트기술, 실증을 넘어 생태계 확장’이라는 주제로, 스마트건설의 최신 기술과 산업 확산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제1부: 스마트건설 생태계 확장(AI·데이터), 제2부: 재난안전·사고예방, 제3부: 모듈러 등 스마트 기술 확장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김영태 대표(Con GPT AI 챗봇) △홍성효 성건엔지니어링 대표(아이뷰 기반 디지털 플랫폼 ‘오아시스-A’) △정욱

찬 팀워크 대표(AI Agent 현장관리 서비스 ‘ponder’) △김용희 더 부엔지니어링 대표(3D 철근 BIM Shop-Drawing) 등이 발표한다.

또 △정기혁 한화솔루션 파트장(데이터센터 역량) △김기환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교량 유지관리 디지털 전환 ‘Dr.Bridge AI’)이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도종남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지반구조 물 붕괴사례와 안정성) △Pham Ngoc Phuong 교수(베트남 다양 대학교, K스마트기술 실증 결과) △안동열 쌍용건설 차장(현장 스마트기술 적용 사례) △신철홍 삼성전자 프로(SmartThings Pro for Safety)가 발표를 이어갔다.

제3부에서는 △안용한 한양대 ERICA 교수(모듈형 PC 공동주택) △조봉호 아주대 교수(표준형 K-모듈러 주택 기술개발) △김경석 한국도로공사 인프라부장(프리팹 기술 개발 및 실증사례) 등이 발표했다.

도구보다 가르침 본연에 집중한 노력의 결실

한국교육신문

한국교육신문(발행인 강주호)을 발행하는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2월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총회관에서 ‘제56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며 겪어온 문제를 교사 스스로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낸 작품들이 올해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은 초등 문해력의 핵심인 띠어쓰기를 감각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설계한 경남 우산초·김천초·청원남산초 교사로 구성된 ‘풀짜한글’ 팀이 받았다.

또 특수교육과 영어 문해력 분야에서도 현장성이 강한 작품들



이 선정되면서 교사 연구가 학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다.

국무총리상은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상 현실과 다각각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한 ‘손수배움’팀과 통합적 영어 문해력 프로그램을 제작한 대구칠성초 임현진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전수식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AI와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은 결국 학생을 이해하고 돋는 교사의 마음에서 나온다”며 “선생님의 연구와 실천이 교실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총이 앞장서서 지원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시작합시다, Together We Can”



의협신문

의협신문(발행인 김택우)을 발행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의협은 이날 긴 세월 의료현장을 지켜온 회원과 직원들의 노고를 되새기며, 앞으로 조직과 의료환경을 새롭게 세워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직원들을 향해 “의협을 평생 직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 손들어 달라”고 즉석에서 물은 뒤 “1년 후, 2년 후에는

누구나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 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Together We Can)”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의협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근속 포상 및 우수 부서·직원 시상이 진행됐다.

먼저 30년 근속자로는 이영재 신문미디어국 산업팀 팀장, 김영완 학술면허국 의료감정팀 부장, 송성철 신문미디어국 논설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20년 근속 포상은 김은경 총무국 총무팀 대리, 박미경 전략기획실 팀장, 이준호 총무국 총무팀원, 박송이 정책국 정책팀원, 이승아 보험국 보험급여팀원, 박지연 의무법제국 의료광고심의팀원, 최지영 학술면허국 학술교육팀원, 김선경 신문미디어국 미디어팀원,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수여됐다.

홍보팀 팀장, 윤세호 신문미디어국 미디어팀 팀장에게 돌아갔다. 이와 함께 5년 근속자로는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지윤 보험국 보험정책팀 대리, 임선미·문성제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포상을 받았다.

올해의 우수팀으로는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업무지원팀, 정책국 사회협력팀, 의료배상공제조합 경영지원부를 꼽았다.

우수직원상은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박미경 전략기획 실 홍보팀장, 박혜연 전략기획실 홍보팀원, 이준호 총무국 총무팀원, 박송이 정책국 정책팀원, 이승아 보험국 보험급여팀원, 박지연 의무법제국 의료광고심의팀원, 최지영 학술면허국 학술교육팀원, 김선경 신문미디어국 미디어팀원,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수여됐다.

아울러 지역의사회에서도 공헌을 인정받아 박지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사무처장, 한강 광주광역시의사회 과장, 김영복 군산시의사회 사무국장이 우수직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우리의 사명… ESG 경영 발굴·확산 ‘주목’



농수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발행인 길경민)은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LW컨벤션 LW홀에서 ‘2025 대한민국 농식품 ESG 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사료·한국단미사료협회 등에서 후원했다.

올해는 내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영예의 대상인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인 농진청장상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상미식품·우성, 우수상인 농수축산신문사장상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임업진흥원·

무계바이오농업회사법인·NH농우바이오 등 총 9개 기업·기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길경민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이 상은 ESG경영 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 구현을 위해 대외적 협력 제고와 ESG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혼신과 노력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리라 믿으며 앞으로도 ESG경영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농식품 ESG경영 대상은 농업·농산·식품업계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했다.

K-푸드, 마·중·EU 현지 전략 ‘집중’

식품음료신문

식품음료신문(발행인 이군호)은 지난 11월 4일 ‘2026 K-푸드 수출 성공 전략 세미나’ 라벨링 하나로 수출이 막힌다’를 주제로 서울에 위치한 aT센터 창조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민텔(Mintel)의 황태영 식음료 애널리스트가 ‘2026 글로벌 식음료 소비자와 제품

혁신’을 주제로 발표,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등이 겹친 ‘다중·영구적 위기(Polycrisis)’ 시대를 맞아 2026년 이후 소비자의 핵심 모토가 ‘인내(Persevere)’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트레이드파트너스 안지정 대표는 ‘2026 EU 식품수출 및 라벨링 규제 대응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대표는 EU의 FIC 규정에 따른 14종 알레르겐 표기법과 주원료 원산지 병기 의무를 설명하고, 2026년부터 시행될 포장재 환경 규제(PPWR) 대응을 강조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갔다. J&B Food Consulting의 Jay Lee 대표는 ‘미국 식품 표시 규제 핵심’을 주제로 9대 알레르겐, FDA 영양정보표, Prop 65 등 통관 실무를 다뤘으며,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전문위원은 ‘미국 수출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FDA 통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FTC 제소 및 소비자 집단소송 리스크와 실제 기만 광고 사례를 분석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어 온다움이노베이션 김주연



대표는 ‘2026 중국 시장에 통하는 라벨링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2027년 시행될 새 표시 기준을 중심으로 GACC 등록, 8대 알레르겐 의무화, 7대 영양성분 확대, ‘무첨가’ 문구 금지 등 핵심 변경 사항을 짚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 인증 마크 사용 여부’ ‘주원료 원산지 표기법’ 등 현업의 실무적 질문에 대해 연사들의 명쾌한 답변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팍팍한 삶 ‘쉼표’ 이가탄 약사문학상, 약사 따뜻한 시선 담았다

약사공론

약사공론(발행인 권영희)이 주최하고 명인제약이 후원하는 ‘제12회 이가탄 한국약사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9일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일반 부문(수필·시)과 약대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 기념품이 수여됐다.

일반 수필 부문에서는 김기숙 약사가 ‘할머니의 앞치마’로 대상을 차지했으며 일반 시 부문에서는 정덕

숙 약사가 ‘내소사 벚나무’로 대상을 차지했다.

약대생 부문에서는 김정하 학생이 ‘지우개’, 윤서원 학생이 ‘불규칙한 처방전’을 주제로 청년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은 인사말에서 “문학이란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한다”며 “약사문학상은 약사들의 삶, 일상, 생각, 가치, 경험, 감정 등을 글로 세상과 사람들과 환자와 만나 특별한 무대”라며 밝혔다.

이어 “약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를 한 곳에 모으고 그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돋는 것이 약사공론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약사사회 간 다양한 생각과 감정과 가치들이 더욱 폭넓게 표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약사공론 회장은 격려사에서 “수상하는 분들, 참여해 주는 모든 분들이 일상의 각박함을 행복으로 되돌려주는 역할 하신다고 생각한다”며 “약사들이 약사라는 면허 안에서 갖혀 있어서 그렇지 정말 재능 많은 분들이 많다. 재능 많은 약사에게 이런 기회의 장 마련해 주신 명인제약 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가탄 한국약사문학상 수상한 수상자들에게 깊은 축하 말씀 드린다. 약사 문학적 정서함양 위해 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이모저모

“전문신문, ‘심층적 전문성’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열다”

■ 기념사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깊은 신뢰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님들과 전문신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전문신문협회가 창립 61주년을 맞이해서 전문신문인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는 정부 포상과 한국전문신문상이 수여되는 성대한 축제의 날입니다. 먼저 오늘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시는 모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신 일본전문신문협회 쯔미타 이사장님과 스가이 전무이사님, 니헤이 국제교류위원장님, 그리고 오랜 인연을 이어오신 현동실 고문님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일 양국 협회는 지난 35년간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히 교류

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디지털 혁신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 전문신문협회가 공생공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026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 합동 세미나에서 보다 구체적인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찾아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I 활용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는 공동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AI 활용 저널리즘 교육과 미디어 생태계 대응 전략 포럼’을 정례화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 전략을 공유해야 합니다. 오직 상생과 협력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유일한 방도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문신문 가족 여러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변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 살아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보와 가짜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다는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전문신문업계도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협회장으로서 회원사 권익 증진과 사업 건설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및 공동 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전문신문의 사회적 중요성이 걸맞은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포상 수준 상향과 기반법 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필요할 때 채찍질도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전문신문의 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김민석 국무총리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1주년과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김광탁 회장님과 모든 전문신문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심층 취재와 분석으로 전문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

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신문과 함께 지식과 역량을 계발해 나가고 계신 독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전문신문은 1,500여 종이 발행될 만큼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문성과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지식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 전문신문의 날 주제는 ‘전문신문, 대한민국 미래를 열다’입니다. 우리는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을 주도하고, 혁신을 이끌어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신문 또한 이러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신문이 AI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교홍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입니다.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전문신문협회 김광탁 회장님과 전문신문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지난 61년간 농업, 수산, 종교, 의학 등 산업 전반의 전문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신문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언론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기자 교육과 전문신문상 시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미디어

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은 전문신문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공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빠르게 생산하고 유통하며 정보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보의 흥수는 독자에게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게 어렵게 만들고, 결국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과잉 시대에 전문신문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보도를 통해 독자의 통찰력과 올바른 판단을 도와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전문신문의 가치와 역할을 되새기고,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도 진실과 책임을 지향하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신문이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입니다. 오늘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1주년 및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전문언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신문은 우리 산업과 사회 곳곳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가장 깊이 있게 기록해 온 대한민국 전문지식 생태계의 핵심 축입니다. 산업과 기술, 과학,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때,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국가경쟁력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확산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신문이 가진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기술이 대체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술과 결합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과 함께 마련된 ‘Gen AI

상용시대, 전문미디어의 올바른 혁신방향’ 강연이 그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포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특별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혁신과 열정이 전문신문의 품격을 높이고, 독자의 신뢰를 지켜온 힘이었습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체부도 전문신문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특수신문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고도화, 인력 양성 그리고 유통 기반 개선 등을 통해 전문신문이 변화 속에서도 확고히 자리를 잡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문신문의 역할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각 산업의 현장을 연결하고 전문지식의 흐름을 정교하게 조율하며, 우리 사회의 깊이를 더하는 공적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전문성에 혁신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전문미디어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문신문의 날을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광탁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쯔미타 토모코 일본전문신문협회 이사장



오늘 한국전문신문협회가 창립 61주년을 맞아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훌륭한 61주년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념식에 저희 일본전문신문협회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일본전문신문협회 이사장 쯔미타 토모코입니다. 올해 5월 개최된 일본전문신문협회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향해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저와 함께 니헤이 국제교류위원장, 스가이 전무이사가 일본전문신문협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전문신문대회에는 바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빛낸 모든 참석자들이 국기의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쁘신 중에도 김광탁 회장님, 윤봉한 사무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며, 또한 식전·리셉션에서는 매우 정중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랜 세월 쌓아온 한국전문신문협회와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5월 말에 개최된 세계유산의 고도, 경주에서의 연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연수회의 주요 테마가 되었던 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국 모두에게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는 함께 큰 사회 문제이며, 그 영향은 연금, 의료 등의 사회 보장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전문신문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으로도 한·일 전문신문협회가 서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SNS 등 정보통신 수단의 다양화로 인한 기존 미디어 이탈, 혹은 생성형 AI의 등장 등은 신문 발행에 종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사업 운영의 수정·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큰 경영상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매우 어려운 시기일수록 양국 전문신문협회에 공통된 다양한 과제에 대처하고 극복하여 미래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신문이 산업·경제·사회생활에 기여하는 역할은 매우 큽니다. 꼭 힘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2026년에는 이번에는 저희가 귀 협회 임원 여러분을 일본으로 모시고 합동 임원 연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꼭 유익한 연수회가 될 수 있도록 개최지를 포함해 상담과 조율 등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일본전문신문협회 임원 일동은 기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국과 우리나라의 우호와 번영, 그리고 한국 전문신문협회 여러분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하며, 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전북 전주시 갑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1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신 김광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AI 알고리즘이 선별한 뉴스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

기애, 한국전문신문협회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산업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건전한 언론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협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을 이끄는 전문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여러분의 활동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박수현 국회의원입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1주년과 전문신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을 위해 헌신해주신 한국전문신문협회 김광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1년간 전문신문은 각 분야의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한국 언론의 다양성을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확한 정보 전달자로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자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신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원주 출신의 국회의원 박정하입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의 창립 6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64년 창립 이후 우리 전문신문협회는 각 산업의 전문 정보를 전파하고 언론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혁신의 시도를 선도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모든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먼저 창립 61주년을 맞은 한국전문신문협회의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64년 창립된 이후에 산업 각 분야의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들과의 소통의 역할을 해온 전문신문들의 오늘 축제의 날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200여개 회원사가 있는 이 전문신문이 우리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혜를 비추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조은희입니다. 먼저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영예로운 한국전문신문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1964년 창립 아래, 6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600여 개 전문신문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식품, 농업, 의약, 건설, 에너지, 환경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정확하고 가치 있는 정보 전달에 힘써 오신 전문신문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AI로 대표되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 앞에서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전문신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Gen AI 상용시대, 전문 미디어의 올바른 혁신 방향’을 주제로 미래를 모색하는 오늘 기념식은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1년간 그랬듯이 한국전문신문협회가 다가오는 AI 시대에도 전문 미디어의 혁신을 이끌며 산업 현장의 굳건한 나침반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문신문의 날’을 축하드리며, 한국전문신문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국의 전문신문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을 포함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정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존경하는 김광탁 회장님과 전문신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전문신문협회 창립 61주년과 뜻 깊은 ‘2025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산업과 사회 전반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언론 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시는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문신문은 지난 61년간 농업, 건설, 의약, 환경, IT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 현장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며 ‘정보의 모세혈관’이자 ‘지식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끈기와 사명감으로 전문 분야의 정확하고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해 오신 전문신문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언론은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정보의 과잉과 허위 정보의 위협 속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무기로 하는 전문신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전문신문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굳건한 나침반’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문신문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도록



정부포상(대통령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진숙 디지털전문뉴스 과장, 김상은 장업신문 편집국장, 표정주 중소기업뉴스 차장, 송재선 농촌여성신문 편집국장,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김원준 의학신문 경영기획실장, 유철 환경타임즈 발행인, 이성복 한국농업신문 상무이사, 박미영 코리아슈핑가제트 본부장)



동암언론상을 수상한 홍준 한국대학신문 발행인(사진 가운데)이 김광탁 한국전문신문 협회 회장(사진 왼쪽)과 후원사인 험용현 약업신문 회장(사진 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암언론상 및 한국전문신문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지연 내외뉴스통신 기자, 박범석 한국연예 스포츠신문 발행인, 홍준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김광탁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양영구 메디칼업저버 편집부장, 안이주 원예산업신문 관리 부장, 이영학 화광신문사 편집부장)

록 흔들림 없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전문신문의 디지털 전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춘 미디어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전문신문이 갖춘 신뢰도 높은 지식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더 넓게 유통되고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기념식이 지난 61년을 빛난 삶의 전문신문이 더욱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전문신문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상소감

대통령 표창

김원준 의학신문 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전문신문협회 관계자 여러분. 대통령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고, 동시에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이름으로 받았지만, 사실은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노력과 업계 선배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의 힘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진실된 기사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기자와 언론인들을 대신해 받은 상이라 생각하며,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의 상이 '성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 신문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산업과 사회를 잇는 통찰과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속에서도, 독자에게 신뢰받는 언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상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유철 환경타임즈 발행인



20년이 넘도록 환경전문 언론의 기자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늘 함께하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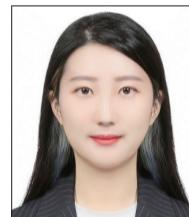
송재선 농촌여성신문 편집국장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은 농촌여성과 농촌 현장의 삶을 기록해 온 농촌여성신문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진 상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신문으로서 현장성과 공공성을 지켜온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돼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농촌과 여성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

뢰받는 전문언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디지털전문뉴스 과장



전문신문의 날을 맞아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 전문언론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이 영예로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디지털전문뉴스가 국내외 경제와 전문신문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은 장업신문 편집국장



K-뷰티가 세계 시장 속에서 승승장구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탕에는 장업신문은 물론 업계 전문지가 묵묵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정론 언론인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복 한국농업신문 상무이사



30년 넘는 세월 동안 농업 전문기자로 살아오며 한결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온 시간이 오늘 이 상으로 이어져 무척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농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기록해 온 지난 세월은 결코 제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기술혁신을 이끌어온 농업인과 기업인들, 그리고 늘 함께 고민하며 농업의 미래를 지켜온 동료 기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한국농업신문의 상무로서, 농업 전문 언론이 더 넓은 시야로 농업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초심을 잊지 않고, 농업과 농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정직하고 깊이 있는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독자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정주 중소기업뉴스 차장



평소 맑은 일에 최선을 다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함께 한 동료들의 헌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박미영 코리아쉬핑가제트 본부장

한국전문신문협회에서 주시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주신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암언론상**홍준 한국대학신문 발행인**

먼저 이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김광탁 회장님과 협회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한국대학신문은 대학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모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를 바탕으로 k-edu의 눈부신 성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 발전의 원동력인 고등교육, 특히 그 바탕이 되는 뿌리산업을 키우는 전문대학의 역할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를 키우는 전문대학처럼 저희 전문신문도 전문가가 만드는, 전문가 집단을 위한 신문이 되어 대한민국 전반을 바치는 기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문신문상**박범석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발행인**

이번 상은 저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한국연예스포츠신문 모든 임직원과 기자분들의 땀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본질은 진실을 전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문은 그 사명 아래,

연예와 스포츠 분야의 깊이 있는 보도와 책임 있는 저널리즘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로부터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상은 단순한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언론으로 나아가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연예스포츠신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독자에게 신뢰받는 전문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고생해 준 우리 임직원, 그리고 늘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영구 메디칼업저버 편집부장

제61회 한국전문신문의 날을 맞아 우수 기사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항상 옆에서 지지해준 편집국 선배들과 취재에 협조해준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메디칼업저버 기자로서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 노력을 인정받게 돼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조심을 잊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기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지연 내외뉴스통신 기자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해온 시간을 인정받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독자에게 신뢰받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전문신문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에 당선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유철 환경타임즈 발행인, 김광탁 한국전문신문 협회장, 양인범 가스신문 기자, 윤봉한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총장)



협회는 직전 회장을 역임한 박두환 원예산업신문 회장(사진 오른쪽)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식전행사로 홍순성 홍스랩 대표가 'AI 시대, 바람직한 전문 미디어의 역할을 다시 묻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식전행사로 홍순성 홍스랩 대표가 'AI 시대, 바람직한 전문 미디어의 역할을 다시 묻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영학 화광신문사 편집부장

전문신문의 날 61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편집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은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것 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키며 꾸준히 애써온 모든 편집자와 기자들

의 노력을 함께 격려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저 역시 동료들과 마음을 모아 한 줄 한 줄 책임감 있게 편집하며 전문언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전문신문은 각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 책임을 더 크게 느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품격 있는 편집을 통해 전문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안이주 원예산업신문 관리부장

전문신문의 날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함께한 동료와 가족, 그리고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획 주간전문신문 Focus In 제3회 우수기사 선정기사

각 산업별 전문신문 시각으로 현장의 바라보다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광탁)가 '제3회 우수기사'를 선정해 시상식을 지난 11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총 14개 분야(농수축산, 의약, 종교, 교육, 건설, 식품, 뷰티· 패션, 교통·에너지, 금융·세무, 라이프·경제)의 추천 결과 총 13건의 기사가 접수됐다. 이후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한국선교 140주년 기획·언더우드의 유산(한국기독공보 특별취재 팀: 표현모 부국장 대우, 신동하·임성국 부장) △중증 아토피 극심한 가려움, 완전 개선한 린버크 처방 증례(약사신문 김민건 편집부장) 등이 우수기사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본 협회보는 제3회 우수기사로 선정된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 정리 이진숙 기자 kosna1964@naver.com

■ 약사신문

중증 아토피 극심한 가려움, 완전 개선한 린버크 처방 증례

'왜 이 약을 선택했을까' 물음에 답하다 | 장용현 경북대병원 피부과 교수

아토피피부염(이하 아토피)은 염증과 가려움 증을 동반하며, 환자마다 병변 위치·양상·강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질성이 큰 질환이다. 일부 환자는 전신에 병변이 퍼지고, 다른 환자는 얼굴·목 등 특정 부위에 집중되기도 한다. 또 진물이 나오는 심한 염증부터 단순 건조한 상태인 환자까지 병변 양상도 폭넓다.

아토피는 이질성이 높은 질환이지만 만성 질환이기도 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가 요구되기도 한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사용해 온 듀피젠트(두필루맙) 등 생물학적 제제가 효능에 더해 풍부한 장기 안전성을 토대로 의료진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은 이유이며, 듀피젠티를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이 많았던 배경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올해 3월 전까지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간 교차 투여 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 가지 약제만 사용해야 했고 치료 전략을 세울 때 안전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했던 만큼 과거 장기 치료 관점에서 듀피젠티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 3월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간 교체 투여 시 보험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초기 치료부터 환자별 아토피 이질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유연하게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마련됐다.

국내 아토피 치료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장용현 경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한 가지 약제만 선택 가능한 과거에는 이질성이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치료 관점에서 생물학적 제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환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생물학적 제제를 우선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교체 투여 급여가 가능해지면서 초기부터 JAK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가 더 적합한 환자를 구분해 적절한 약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치료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질성이 심한 중증 아토피 치료에서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가려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교수가 선택하는 약제 중 하나가 JAK억제제 린버크(우파다시티닙)이다. 장 교수는 왜 가려움증이 심한 아토피 환자에서 린버크를 선택했을까.

장 교수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가려움증을 치료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줄여주면 피부 병변 호전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삶의 질은 빠르게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린버크는 IL-4/13 경로뿐만 아니라 가려

움증을 유발하는 주요 사이토카인인 IL-31 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가려움증을 보다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토피 같은 면역 질환에서 조기 억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린버크는 다양한 사이토카인 전달 경로를 억제하는 기전이라 피부 염증 또는 가려움증이 심한 중증 환자에서는 JAK억제제가 생물학적 제제보다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급여로 교체 투여가 수월해지면서 중증 아토피 이질성에 맞는 JAK억제제 또는 생물학적 제제 맞춤형 치료 시대가 활짝 열렸다.

장 교수의 실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어떤 환자에게 린버크가 최적의 효과를 보였는지, 왜 가려움증이 심한 환자에게 선택했는지, 환자 증상에 맞는 치료제 선택이 왜 중요한지 '처방 증례'를 소개한다.

장 교수는 "가려움증은 의료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눈에 보이는 염증 반응, 즉 피부 병변 개선을 1차 평가 기준으로 많이들 삐는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느끼는 가려움증 개선 정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린버크 등 JAK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대비 가려움증 조기 억제 장점 많아

그 첫 사례는 듀피젠티에서 린버크로 교체 투여한 환자이다. 이 환자는 몸통 부분에서 아토피 효과는 개선했지만 노출이 많은 부위에서 효과가 충분하지 못 했으며 가려움증도 심한 상태였다.

<증례 1> A씨(여성, 40대) 듀피젠티 투여에도 머리와 목 부위 아토피 개선 불충분, JAK억제제로 교체

장 교수 환자 중 첫 번째 사례는 40대 여성으로 내원 당시 EASI 점수 26.3점, WP-NRS 8점으로 전형적인 중증 아토피였다. 몸통 외에도 얼굴과 목 부위에도 아토피 증상이 있었고 첫 치료제로 듀피젠티를 사용했다.

얼굴과 목 아토피는 환자 고충이 가장 큰 부위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는 두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장 교수는 △첫째로 기준에 있던 얼굴과 목 부위 병변이 얼마나 빠르게 호전하는지 △둘째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염증 반응, 특히 홍반이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지 않는가를 봐야 한다고 했다.

IL-4 수용체를 차단해 IL-4와 IL-3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기전의 듀피젠티를 사용하면 다른 면역 경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돼 기존 염증 반



응이 없던 얼굴과 목 부위에 염증 반응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

A씨도 그러한 경우였다. 치료 초기 얼굴에 홍반이 심하지 않았지만 투약 3개월 시점부터 새로운 홍반과 염증 반응이 나타나 1년차까지 이어졌다.

장 교수는 "환자가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해 린버크 15mg으로 전환해 4주간 치료했으며, 얼굴 염증이 현저하게 호전되 모습이 관찰됐고 효과는 40주까지도 유지됐다"며 다른 억제 기전의 린버크로 교체하면서 홍반 반응이 없어졌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장 교수는 린버크와 듀피젠티를 직접 비교한 임상 연구(Heads up) 결과를 설명하며 "린버크 투약 환자군은 1주차부터 얼굴과 얼굴·목 부위의 EASI 75 도달율이 듀피젠티 보다 더 높았다. 4주차에 EASI 90과 100 도달율 역시 더 높았고, 이러한 효과는 24주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린버크는 아토피 주요 기전인 제2형 염증 반응 뿐만 아니라 다른 염증 반응 경로를 함께 억제해 얼굴·목 부위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얼굴·목 이외 피부 병변 역시 린버크 투여 후 더욱 뚜렷한 개선을 보였으며, 이와 관련한 임상연구 데이터들도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는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했는데, NRS(가려움증 평가 지수)가 8점이었다. 장 교수는 "매우 높은 수치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고 했다.

NRS는 0점(전혀 가렵지 않은 상태)에서 10점(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가려움)까지 환자가 직접 일주일 간 가려움증 정도를 평가한다. A씨는 린버크 치료 후 가려움증 점수가 뚜렷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투약 40주차부터 NRS 점수가 1점까지 낮아졌다. 장 교수는 "이 환자는 듀피젠티 투약으

로 몸통 병변은 호전했지만 얼굴·목 부위는 오히려 악화하는 반응을 보였고, 린버크로 교체한 후에는 전신 병변과 함께 얼굴·목 병변, 가려움증까지 효과적으로 잘 조절된 사례다"고 했다.

첫 내원 당시 EASI 26.3점이었던 A씨는 전체적인 아토피 증상이 조절됐지만 노출이 많은 얼굴과 목 부위 병변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나 불편감을 가질 수 있다.

A씨 사례는 생물학적 제제 투약으로 몸의 증상은 완화되더라도 얼굴에 새로운 염증이 발생하거나,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 효과적인 치료 대안으로 린버크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처방 증례다.

다음은 장 교수와 중증 아토피 치료와 린버크 처방 관련 종합 일문일답.

▶처방 증례를 설명한 환자들은 현재 급여로 린버크를 처방받고 있다.

이 환자들에게 린버크를 처방할 당시에는 한 가지 약제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해주었던 때 라서 비급여로 처방을 받았다. 교체 투약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최적화된 교체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토피 전문가들이 어떤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약제를 선택하고 있는지 등은 좀 더 임상 경험이 축적돼야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처방 패턴 변화나 가이드라인과 일치 여부를 논의하기보다,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쯤 다시 한번 임상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임상적 데이터와 경험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의미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해당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적절한 치료 옵션이 제공되고 있고, 실제로 처방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3차 병원에서 아토피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

사실 생물학적 제제나 JAK 억제제는 1차 병원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JAK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임복 결핵이나 간염 같은 검사들을 사전에 체크해야 하며, 또 급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일정 기간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면역억제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적인 혈액 검사나 혈압 체크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사이클로스포린을 사용할 때는 고려해야 할 임상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JAK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3차 병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2차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3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 그래서 개원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새로운 약제가 출시되면 약제 업데이트나 정보를 지역 내에서 함께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약제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증증도를 가진 환자일 경우 3차 병원으로 빠르게 전원하면 저희가 적절한 치료 옵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고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처럼 개원가와의 소통이 효과적인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해 두는 것이 결국 증증 환자들이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 린버크 등 표적치료제들이 도입되며 EASI 90/100, WP-NRS 0/1 동시 달성이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치료 목표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증상이 없고 재발도 하지 않는 완치다. 하지만 완치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료진이 보는 최선의 목표가 MDA(Minimal Disease Activity, 최소 질병활성도 / EASI 90과 WP-NRS 0/1 동시 달성)이다.

MDA는 환자가 평가하는 가려움증과 의사가 평가하는 피부 병변 정도가 중요하다. EASI 90/100은 환자 피부 병변의 처음 상태를 100으로 놓았을 때, 그로부터 90%나 100% 감소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WP-NRS 0/1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려움증이 가장 심했을 때의 점수가 0-1점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를 의미한다.

MDA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고의 치료 목표다. EASI 90 이상, WP-NRS 1 이하를 동시에 충족했을 때 MDA를 달성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처방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점의 기준이다.

▶ 동일 계열 약제 간 교체 투여 시에도 보험급

여가 적용된다면 MDA 달성에 유리해질 것 같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는 약제들이 계속 새롭게 출시되고 시점이고, 약제 간의 교체를 논의할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동일 계열 약제 간 교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회에서도 환자들이 보다 적합한 치료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치료제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어떤 치료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나?

물론이다. 신이 아닌 이상 모든 환자에게 딱 맞는 약제를 하나씩 정확히 골라내어 최적의 약제를 쓸 수는 없다.

나 역시 어떤 환자는 처음부터 생물학적 제제가 더 맞지 않았을까. 혹은 JAK 억제제를 먼저 썼다면 장기적인 경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결

국 임상 경험으로 축적되고, 약제 데이터와 환자 반응들이 더해져서 앞으로 더 최적의 약제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 마지막으로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약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이 약제는 90점, 저 약제는 100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린버크가 적합한 최적의 환자군이 있을 것이고, 다른 생물학적 제제나 JAK 억제제에 대한 최적의 환자군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적의 환자군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약제별로 처방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임상 경험과 기준에 축적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잘 통합하여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러한 기준에 기반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의사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기독공보

지금도 여전히 빛나는 '거목의 유물들'

한국선교 140주년 기획 : 언더우드의 유산 (1) 제물포에서 언더우드를 생각하다

지난 2024년 12월 26일, 14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향한 인천시 중구 일대에는 고층 건물들과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많아 바다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자리인 인천자유공원 언덕에 올라서자 그제서야 감추인 바다는 모습을 드러냈다. 제물포항 도착 후 이 언덕에 올라 언더우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에는 “오늘 사방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두움 속에서 얹암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이날 부활절 예배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라고 새겨져 있다.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다양한 근대 문물과 문화가 유입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역사자원이 남아 있어 인천시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본 산으로 평가받는 이 지역을 ‘개항장 역사문화 순례길’로 조성했다.

특히 이 순례길 안에 2.6km의 ‘1885, 바다이 음길’ 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대불호텔 전시관-내리감리교회-로제타홀기념관을 잇는 ‘한국기독교 최초 순례길’을 조성해 놓았다. 1885년 바다를 통해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 오면서 형성된 종교 문화 자원 중 ‘한국 기독교 최초’를 대표하는 주요 건물을 연결해 탐방으로 만든 것이다.

특히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은 1885년 인천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펠셀러 부부의 선교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선교 100주년 해인 1984년 기공식을 갖고 1986년 준공한 17m 높이의 탑이다. 이 탑에는 선교사 3명의 청동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이 기념탑은 인천기독교연합회가 세운 것으로, 인천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의 현금과 기도로 세워져 이곳을 지나는 많은 이들에게 근대 우리나라에 복음과 신문물을 전한 선교사의 업적을 알리고 있다.

을 지나는 많은 이들에게 근대 우리나라에 복음과 신문물을 전한 선교사의 업적을 알리고 있다.

특히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은 1885년 인천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펠셀러 부부의 선교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국선교 100주년 해인 1984년 기공식을 갖고 1986년 준공한 17m 높이의 탑이다. 이 탑에는 선교사 3명의 청동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이 기념탑은 인천기독교연합회가 세운 것으로, 인천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의 현금과 기도로 세워져 이곳을 지나는 많은 이들에게 근대 우리나라에 복음과 신문물을 전한 선교사의 업적을 알리고 있다.

#“왜 네가 가지 않느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는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어린 나이에 신대륙으로 가게 된 언더우드는 14살이 되던 해 인도 선교사로 갈 생각을 할 정도로 선교에 깊은 뜻을 둔 신앙인이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배우면서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1년 정도 의학을 별도로 배우기도 했다. 인도로 선교를 하려던 그는 북장로교에서 한국 선교사를 찾는데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왜 네가 가지 않느냐?”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한국선교를 결심하게 됐다.

1885년 3월 27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를 태운 채 일본 요코하마 항을 떠난 배는 나가사키와 부산을 거쳐 드디어 4월 5일 부활절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그 후 31년간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누구보다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쳤으며,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근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140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는 유산

그렇다면 우리는 왜 140년이 지난 지금도 언더우드 선교사를 그리워하며 그의 업적을 기리는 것일까?

언더우드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너무도 많아 일일이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의 아들 원한경 선교사가 1916년 미국북장로교에 보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언더우드 박사는 연합대학의 총장이며, 그곳에서 심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YMCA의 회장인 동시에 15명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이었으며, 조선성교서회 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일했습니다. 또한 피어슨성경학원의 원장이며, 서울 복음전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성경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의 실행위원회의 위원을 비롯해 교육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으며, 세브란스 병원 관리부장, 서울 외국인초등학교 위원회 위원, 연합 법률위원회의 위원으로 수고했습니다. 장로교 총회의 여러 위원회와 기타 한국 교회 위원회에서 봉사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문안교회의 목사였고, 36개 기독교 모임의 서부지구 책임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스코필드성경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며 많은 서적의 번역을 감수했고, 레이놀즈 박사와 공동으로 성경 개역작업을 했습니다.(1916년 6월 6일 제출자 H.H. 언더우드)”

여기에도 적혀 있지 않은 업적도 △예수학당(현 경신학교) 설립 △아펜젤러, 스크랜턴, 헤론 선교사 등과 함께 성서번역위원회 조직 △연합선교공의회 조직해 에큐메니칼 선교 실천 △남장로교 선교사들에게 강연을 통해 호남선교 자원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 등 셀 수 없이 많다.

언더우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초대 총회장으로 총회의 기틀을 잡은 인물이기도 하다.



1912년 예수교장로회 제1회 조선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시 부회장이 길선주 목사, 서기예 한석진 목사, 회계예 방위량 선교사, 부회계 김석창 장로 등이었다. 그는 총회장으로서 취임하며 △신자와 신자 사이의 연합 △믿는 자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낼 것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릴 각오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언더우드는 1916년 9월 12일 병을 치료하기 위해 간 미국 뉴저지 애틀랜틱시에서 5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한국 땅에 묻히기 원한 그의 유언대로 별세한 지 83년 만인 1999년 5월 20일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安葬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대로 140년이 지난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 뒤에 우리 한국교회는 교세감소와 대사회 이미지 하락 등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올 한 해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언더우드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 그가 남긴 다양한 영적 유산을 살펴보며, 그의 신앙을 조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독교신문 창간 60주년 기념사]

'사랑의 실천' 구현에 앞장

김종량 회장



기독교신문이 올해로 창간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신문은 민족사의 격동기 속에서 한국기독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교회의 연합과 일치로 성찰하고 구현하기 위해 창간됐습니다.

'교회연합신보'라는 이름으로 창간됐던 본지는, 한국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동안 '사랑의 실천' 정신을 구현하면서 걸어 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신문은 한국교회의 중심에 서서 언론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기독교신문의 역사는 한국교회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 주류와 비주류로 갈라질 때, 그리고 분열했던 두 교단이 다시 하나가 됐을 때 생생한 현장을 독자들에게 보도했습니다.

19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렸던 한국기독교 백주년선교대회 현장과,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2024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차 로잔대회 등 중요한 사건들을 사실에 입각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보도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신문은 무엇보다 교회연합과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파별로, 교단별로 사분오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로 하나 되는 일에 주력할 것입니다.

기독교신문은 지난 60년 동안 '사랑의 실천 운동'을 위해서 애써왔고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해 이 길을 위해 나갈 것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통해 오늘의 교회와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도록 달려가겠습니다.

2천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독교신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기독교신문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신문이 걸어온 여정은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독교신문은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기여하고, 독자 여러분에게 사랑의 소식을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신문 창간 37주년 기념사]

"불확실성 격랑의 시대, 납세자 권익 지키는 '나침반' 될 터"

이한구 발행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세신문을 아끼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창간 37주년을 맞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세신문은 창간 37주년이라는 뜻 깊은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1988년 첫 걸음을 내디딘 아래 국세신문은 '올 곧은 바른 언론의 창간 이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세 정의와 납세자의 권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해 왔습니다. 지난 37년의 발자취는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납세자의 목소리를 담고 시대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흘려온 치열한땀과 열정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의 거대한 격랑 속에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는 요동치고, 경제 불확실성은 확대되며, 기업과 납세자들은 더욱 복잡하고 무거운 환경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전 속에서 국세신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납세 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이 뿌리내리도록 국세신문이 앞으로도 굳건히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기술의 혁신이 곧 긍정적 성과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잘못 설계된 제도와 불완전한 시스템, 미비한 대응은 오히려 납세자에

게 얹울한 피해와 불편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세신문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더욱 깨어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국세행정이 진정한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정착되도록 감시하고 경제하며, 납세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세신문은 그 사명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세신문의 37년은 곧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발자취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강철 같은 언론, 조세 정의를 선도하는 선구자적인 언론, 그리고 미래를 여는 책임 있는 언론으로 우뚝 설 것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국세신문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사명 아래 더욱 굳건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정의의 언론, 신뢰의 언론,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으로 새로운 40년, 50년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정과 일터마다 늘 건강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간기독교 창간 55주년 기념사]

기독교신문의 생활화

김민홍 발행인



1970년 11월 15일이 주간기독교 생일이다. 55년 전 이날 주간기독교가 세상 문을 열었다. 그날 창간의 첫울음은 이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정신적 풍토는 확실히 늙었다." 첫울음의 메시지 치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 제기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정신적 구심력을 확산시킨 유·불교나 구미 문명의 배경이 된 기독교 역시 한국 땅에서 쇠잔해 가고 있다"라는 거침없는 지적을 했다.

주간기독교는 창간호에서 종교의 쇠잔을 질타했다. 종교가 방황하고 허약해져 가는 이 땅의 정신세계를 구원하고 또 변혁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놓다 하고 외면하는 데 분노했다. 한마디로 종교가 늙었고 이로 인해 그 막중한 사명의식을 내팽개친다고 지적했다.

해서 주간기독교는 늙은 종교를 새로 일깨우는데 앞장서서 세상에 진 빛을 갚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교회와 사회 간 막혔던 탑을 헐어, 상호 연관성의 결핍을 보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세 향목의 기본 제작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둘째, '교회와 교회 사이의 연결' △셋째, '공동사회'의 개발'.

주간기독교는 이 기본방향의 세부 실천 사항으로 기독교 각 교파도 초월해,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나 사랑과 봉사, 희생의 제작에 혼신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또 기독교인들이 벗삼는 기독교 신문의 생활화와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상 캠페인도 병행

할 것이라 약속했다.

우리는 지난 55년 동안 이 가치와 이념을 잊거나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수많은 기자가 '주간기독교' 제작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단 한시도 창간 방침을 벗어난 제작을 한 적이 없음을 자부한다.

그래도 주간기독교는 기술문명과 시대 문화의 변화만큼은 수용하고 따랐다. 그것은 신문의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 더욱 그랬다. 주간기독교 창간 때 신문은 지금처럼 책자 형식이 아니다. 타블로이드 판형이다. 타블로이드 판형이란 신문의 크기가 오늘날 일간지의 절반 정도이다. 또 당시 기자들은 지금처럼 컴퓨터 자판기로 기사를 쓴 게 아니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원고지에다 기사로 만들어, 이를 문선부에서 활자를 뽑고 정판부에서 신문판을 만들어 윤전기에 돌렸다.

더욱이 인터넷 매체 출현 등 미디어 환경마저도 급변해 일간지나 주간지는 뉴스 보도에서 경쟁에 뒤지는 환경이 됐다. 때문에 기사 작성도 해설과 전문가 진단, 좌담회, 세미나, 평론 등 심층취재 위주로 변경했다. 주간기독교는 세월이 흐르면서 외형에 큰 변화를 겪었지만, 내면 특히 제작의 기본방향은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방침 또한 앞으로 지속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린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원사 창간기념을 축하합니다

10월 8일

물류신문(28주년)

10월 15일

대학신문(37주년)

10월 20일

국세신문(37주년)

장업신문(31주년)

10월 23일

국토매일(16주년)

10월 26일

농축환경신문(27주년)

10월 31일

타임즈코어(25주년)

11월 8일

독서신문(창립 55주년)

11월 14일

여성농업신문(20주년)

11월 11일

환경경영신문(20주년)

라이브팜뉴스(19주년)

11월 15일

주간기독교(55주년)

한국농업신문(13주년)

11월 17일

농촌여성신문(19주년)

12월 12일

기독교신문(60주년)

12월 15일

치의신보(59주년)

12월 19일

뮤즈온에어(2주년)

12월 30일

한의신문(58주년)

12월 31일

간호사신문(49주년)

기자 수첩

교회가 만든 성역은 '성역'이 아니다

기독신문 현성혁 기자

최근 통일교를 넘어 이단·사이비를 둘러싼 논란은 종교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 존재해 온 '성역'의 실체를 묻고 있다.

통일교 자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인사들과 연결돼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종교와 권력의 결합이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며 책임 논의를 시작했다.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인식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국 교회는 이단 문제와 종교 유착 문제 앞에서 과연 성역 없는 분별을 보여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교는 이미 한국교회 다수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그 판단은 신학적 검토와 공적 절차를 통해 형성돼 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 경계가 느슨해지는 장면들이 반복된다.

통일교를 응호한 외부 인사가 문제 제기 없이 대형교회 강단에 서고, 교계 안에서 이단 규정이 사실상 힘을 잃는 장면은 여전히 의문을 남긴다.

총회 역시 다르지 않다. 총회는 현재 이단 탈퇴자, 이른바 다락방 출신자 수용을 위한 내규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동시에 교단 사조직이 다락방 거물급 출신 인사들을 초청한 행사에 총회장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려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총회는 검증을 말하고, 사조직은 수용의 신호를 보내는 이중적 구조가 교단 안에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 안에서 힘과 조직 논리에 따라 점검이 유예되는 영역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역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성역이다.

교회가 스스로 성역을 설정하는 순간, 분별력은 약화되고 성도들의 신뢰는 흔들린다.

정교유착을 경계하는 정부의 메시지는 교회를 향한 압박이라기보다, 교회가 먼저 던졌어야 할 질문을 사회가 대신 던지고 있는 장면에 가깝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 받는 공동체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과 공교회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물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성역 없는 분별이 가능한가? 성역은 교회가 정하지 않는다. 성역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완주 고산 도로공사, 안전·환경·행정 부실 한꺼번에 드러나

전북제일신문 이중복 기자

환경부 전북 지역 환경청 발주공사인 완주군 고산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은 며칠 사이 안전·환경·행정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현장이 됐다. 시작은 신호수도, 차량 통제도 없는 무방비 공사였다.

공사 구간에는 차량 통제를 알리는 기본적인 표지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았다.

차량들은 아무런 안내 없이 파헤쳐진 도로 위로 그대로 진입했고,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하부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노면 상태가 심각했다.

그날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관리의 결과 아니라 단순한 '운이었을 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기존 도로를 깎아내며 발생한 폐아스콘(폐아스팔트)이 수거되지 않은 채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됐다. 차량과 농기계는 이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고, 도로 위는 파편과 자갈, 분진으로 뒤엉켰다. 운전자들은 "차량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날 정도"라고 호소했다.

폐아스콘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다. 법적으로 관리되는 산업폐기물이다. 즉시 수거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대상이 생활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됐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한 관리 실패다. 안전도 놓쳤고, 환경도 외면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전북 환경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폐아스콘의 발생부터 수거·운반·처리는 환경 행정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하지만 고산 현장에서는 폐아스콘이 차량에 밟히고, 비산먼지가 날리는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환경 당국의 즉각적인 현장 조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공사는 업체가 해도, 폐기물 관리는 환경청 몫 아니냐"며 "이렇게 빤히 보이는 불법 방치를 왜 아무도 막지 않느냐"고 물고 있다.

고산 도로공사는 이제 단순한 사공 문제를 넘어 △무신호·무통제 안전 불감증, △폐아스콘 무단 방치 △전북환경청 관리·감독 공백까지 더해지며, '총체적 행정 부실'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됐다.

사고는 늘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항상 이런 경고가 있었다. 지금 고산의 도로는 공사 중이 아니라, 행정이 멈춰 선 현장이다.

한편, 전북제일신문은 이어 공사 현장에 문제점인 안전 관리비, 공사 자재방지, 현장대리인 현장 이탈, 전북환경청장의 직원관리 부족 등을 연속으로 보도한다.



카카오의 변심에 친구가 떠난 이유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카카오톡(카톡)의 인스타그램식 피드형 개편으로 카카오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지난 28일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오픈AI와 협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양사 협업의 첫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카카오는 이날 친구 탭을 기준 '친구 목록'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업데이트를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카카오가 기술적인 '롤백(원상복구)'은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일부 누리꾼들이 이미 주요 기능 롤백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리밴스드(ReVanced) 버전'을 설치해 카톡 최신 버전(2025.8.2.)에서도 이전 버전처럼 친구탭을 되살린 것이다. '리밴스드 버전'이란 비공식 커스텀 버전을 말한다.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방법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섣부른 개편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카카오는 카톡 내 챗GPT 적용보다 친구 탭 개선을 먼저 했어야 했다. 카톡이 국민 메신저라고 불릴 만큼 개편에 따른 영향이 커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주가는 하락했으며, 경영진이 국정감사장에 불려가 쓴소리를 들을 정도로 비판 여론이 끊이질 않았다. 카톡의 피드형 개편은 사용률이 낮은 10~20대를 유입시키고 앱 체류 시간을 늘려 광고 수익



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였다.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10~20대가 카톡 대신 소셜미디어의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는 현상에 대한 카카오의 전략이었던 셈이다.

바꾸면 알아서 적응할 것이라는 국민 메신저의 오만한 생각은 국민적 비난을 얻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용자들의 비판과 함께 앱마켓 평점은 1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결국 카카오는 업데이트 6일 만에 친구 목록 등 가장 비판이 거센 일부 업데이트를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표도 했다. 그렇다면 친구 탭 개선이 먼저였다. 카카오 내 챗GPT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 서비스 이상을 이용하려면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 결국 카카오가 너무 수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플랫폼도 회사이고 수익을 추구하는 건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 메신저'로 불릴 정도로 영향이 큰 서비스라면 수익성뿐 아니라 이용자의 의견 또한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일부 업데이트를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표도 했다면 그것을 먼저 진행했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 필요한 것은 수익보다는 신뢰다.

멈춰선 계란 생산 규제 시계…2년 유예가 던진 숙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와 산란계 농가의 오랜 갈등이 결국 '2년의 시간 벌기'로 일단락됐다.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사육기준 면적을 확대하는 축산법 개정안의 전체 농가 확대 적용이 2년 더 유예된 것이다.

이는 동물복지와 축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키를 잡으려던 정부 정책이 현장의 거센 저항과 부처 간 간막이에 가로막혀 좌초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행정의 단면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준 케이지 기준 수당 0.05m²에서 0.075m²로 확대 적용하는 기준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축산법을 개정하며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대한산란계협회를 중심으로 농가들은 법의 소급 적용 문제를 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진행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 기준 확대로 인한 계란 생산량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케이지 사육 높이 상향, 축사 신증축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규제에 막혀 실행 동력을 잃었고, 결국 정부 스스로 대안 마련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2년의 추가 유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2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농식품부와 산란계협회는 단속 유예 결정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산란계가 본격적인 산란에 가담하는 주령 등을 감안할 때, 농가들은 이미 내년부터 새로운 입식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이 중대한 정책 공백이 지속된다면 농가들은 또다시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결국 미래의 계란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2년 유예를 단순한 시간 끌기나 갈등 회피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가 안정이나 환경 문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 지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단발성 할인 행사나 임시방편의 유예 조치만으로는 계란 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 없다.

2년 후에는 '정책 실패의 유예'가 아닌 '성공적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결단이 내려 지기를 기대해본다.



회원사 동정

농업인신문

탄자니아 정책관리자와 간담회 개최



농업인신문(발행인 노만호)를 발행하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지난 12월 5일 국제농업협력 신규사업 6개국 통합 초청연수를 통해 방문한 탄자니아 정책관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 및 문화체험 등으로 일정을 마쳤다.

노인두 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자니아 정책관리자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농촌지도자들처럼 농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쌀 생산성 증가를 위해 앞장 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HE BIO

더바이오-쇼난 아이파크 뉴스

콘텐츠 공유

더바이오(발행인 이영성)가 일본 최



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 헬스 이노베이션 파크(쇼난 아이파크)’와 ‘뉴스 콘텐츠’를 공유한다고 지난 12월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더바이오가 생산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요 R&D 성과와 최신 동향을 담은 영문 뉴스가 쇼난 아이파크의 공식 뉴스레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배포된다.

이영성 발행인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시장에 ‘K-바이오’를 알리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발행인 안상석)과 휴먼피봇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pma.kr

회장·발행인 김광탁 명예회장·편집인 박두환 편집고문 김시중

부회장 김관홍·정재환·김종철 이 사 이군호·박연준·이진희·김중규·홍준·방두철 양옥석·조경우·주동탁·유철·조덕원	감사 백용태·오경섭 함윤현·김시중·유태우·이덕수·양영근 조성희
---	--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당산동 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1964@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한국씨티에스

을 위해 바우처 사업 ESG 기업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에게 바우처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두 기업은 중소기업 상생 협력지원원에서 바우처 신청 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협력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돋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광신문

한국SGI 대학부 평화·문화·교육 논문 공모전



화광신문(발행인 정재환)을 발행하는 한국SGI가 ‘제2회 한국SGI 대학부 평화·문화·교육 논문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논문 주제는 아케다 선생님의 저서·제언·대답을 중심으로, 오늘의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자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과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연구 내용이다. 타 기관 공모에 제출했거나 학술지,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은 응모할 수 없으며, 논문 심사는 오는 2026년 3월 중 진행되고 수상자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장학금(대상 300만 원 등)이 수여되며, 수상자 중 일부에는 학술 대회 발표나 학술지 수록의 기회가 제공된다.

문의: 02-6300-7119

화장품신문

'K-뷰티 트렌드 매거진',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서 인기



화장품신문(발행인 함태원)이 발행한 ‘K-뷰티 트렌드 매거진(K-Beauty Trends Magazine)’이 세계 최대 미용 박람회인 ‘2025 코스모프로프 노스

아메리카’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 매거진은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비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람회 현장에 마련된 K-뷰티 홍보관, 매거진 배포대, 한국관 등 주요 지점에 비치돼 행사 기간 동안 총 1,500부가 배포됐다. 책자에는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의 부스 위치와 출품 브랜드 및 제품 정보를 보기 쉽게 정리했다.

화장품신문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전문신문골프동우회가 지난 10월 14일 ‘한국전문신문협회장배 전문신문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포토뉴스



전문신문산우회가 지난 9월 6일 ‘전문신문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문신문협회 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본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 50-1 2F
관리부 02 362 1199 영업부 02 362 6677 전산실 02 362 5311

제작센터

서울시 부일로 815번길 56-67 (운수동)
02 2684 3377



2025년 9~11월 정기간행물 신규 등록 현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간: 2025.09.01.~2025.11.30./제호등록일순>

등록번호	제호	회사명(법인명)
전남 다00466	폭로닷컴	폭로닷컴
경기 다50808	세계복음화신문	세계복음화신문사
인천 다06159	재안뉴스	(주)뉴스비전
전남 다00465	인사이드전남	스키앤레저
서울 다50840	에포크타임스 (THE EPOCH TIMES)	(주)에포크미디어코리아
서울 다50839	연희문고	(유)연희문고
경북 다01558	경산일보	경산교차로(주)
경남 다01570	로드저널	(주)로드저널
대전 다01344	대덕주간신문	온미디어 협동조합
울산 다01112	울주신문	(주)비유케이뉴스
인천 다06158	고령친화HYO신문	고령친화HYO신문사
경기 다50807	녹색환경투데이	(주)드림앤투데이
경기 다50806	자차신문	(주)시흥자차그린
부산 다04531	부산보건복지평생 교육원 신문	부산보건복지평생 교육원 신문사
경북 다01557	경북그린뉴스	경북그린뉴스(주)
전남 다00464	목포주간	(유)목포주간
경남 다01569	고성매일신문	고성매일신문(주)
대구 다04681	흑백법률	(주)쾌거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2024서울조정992 손배청구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과를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정보도와 200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연예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명해진 유튜버에 대한 근황 및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의 초상을 게시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에서 언급된 유튜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피신청인이 SNS에 공개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비식별 처리를 하였으나 그 처리가 미흡해 지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이 외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보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화광신문

미래를 육성하는 베에게 드린다

화광신문(발행인 정재환)을 발행하는 한국SGI가 '교학연찬을 위하여-관심본존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서적 '교학연찬을 위하여-임정안국론'에 이어 교학연찬을 위하여 시리즈의 두 번째로 나치렌(日蓮) 대성인의 오대부(五大部) 어서(御書) 중 하나인 '관심본존조'를 담았다. 총 31개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마다 주요 어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돋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돼 있음을 밝히는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리(法理)와 남묘호련계교(南無妙法蓮華經)의 어본존(御本尊)을 믿고 자행화타(自行化他)의 창제에 도전하는 관심(觀心)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서술한다. "어본존의 공력(功力)은 평등합니다. 중개자도 필요 없습니다. 신심이 중요합니다. '관심본존'이란 신심의 본존입니다. 한 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경애를 열고, 자기 생명의 보탑을 최고로 빛내기 위해 어본존이 있습니다"라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의 근본이자 부처의 생명 자체인 어본존을 신(信)에 의해 수지할 때 불계(佛界)의 생명을 용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전국의 한국SGI 문화회관과 인터넷쇼핑몰(hkshop.kr), 모바일 화광신문사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3282-1825 / 가격: 10,000원

책자 발간



세무사신문

해외투자 세무·연말정산 세무 발간

세무사신문(발행인 구재이)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인 '해외투자 세무'와 '연말정산 세무'를 발간했다.

이번에 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로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세무·회계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해외투자 과세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문제를 전문가 집필 실무서로 정리했다.

먼저, 해외투자 세무(이동기 세무사 저, 18권)는 해외주식, 부동산, 외화자산 등 해외투자에 대한 신고·과세 흐름은 일반 투자뿐 아니라 기업 담당자도 어려움을 겪는 분야임을 칭찬하고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해외진출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에 대해 정리하였고, 국외자산 및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분까지 다루어 이해를 도왔다.

이번 발간을 통해 이미 발간 한 '이전가격 세무'(한경배 세무사 저, 14권), '비거주자 세무'(조인정 세무사 저, 14권)와 함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분야의 큰 맥을 짚어 냈다. 또한 연말정산 세무(이석정 세무사 저, 19권)는 공제 요건에 대하여 혼선을 줄이는 구조화 방점을 두고 복잡한 공제 항목을 적용·비적용 기준을 두어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인적·의료비·보험료 등 핵심 공제 항목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고, 연말정산의 흐름도 정리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책은 작년 발간된 초판을 개정했으며, 교육용 동영상까지 제작하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 을 주제별로 나누어 다루며, 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회계 담당자와 금융·세무 관련 실무자들에게도 현장 맞춤형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박상훈 업무이사는 "세무사회는 앞으로 있을 개정세법 등을 반영하여 회원들이 변경된 세법 등에 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와 교육 제공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출판 분야의 혁신을 거듭해 나갈 것이며, '테마별 실무서'인 재개발·재건축 세무(고현식 세무사 저), 취득세 및 재산세 세무(박종호 세무사 저), 가산세 세무(김봉현 세무사 저)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597-2941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전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왜? 전문신문에 광고해야 하는가?

정보 홍수시대에 전문신문은 광고매체로서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신문은 일반신문과
같이 계절이나 요일에
의한 부수의 변동이나
신문구독자의 변동에
따른 불안정이 없다.

전문신문의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시장이 명확하다.
광고목표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에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독자의 관심이 높은 기사와
병행해서 게재되는 전문신문
광고는 광고의 충격이 높다.
따라서 광고주가 자사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알맞은 전문신
문을 선택하면 매우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

전문신문은 일간지와
달리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됨으로써 광고의
생명이 길다.

전문신문은 지면 허비가
적기 때문에 타 매체와의
비교해서 광고비용이 싼
효율적인 매체이다.

전문신문은 독자의 목적
의식과 강하게 밀착되어,
전문사항에 대하여 높은
안목을 갖고 편집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관심
도도 높다.

전문신문의 기사면은
비교적 시각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면이 상대적으로
주의집중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다.

전문신문 광고시점에
이벤트, 기획행사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유통경로에 쉽게 접근
하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일반신문, 뉴미디어의 정
보량 범람의 시대에
독자는 정보에 대해 방어적,
선택적 경향이 강해져
전문신문을 더 신뢰하게
된다.

특히 한국전문신문협회에
가입된 전문신문은
그 품격이 검증된 만큼,
안심하고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